

이중섭의 군동화(群童畫)를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A Study on Fashion Design using Lee Jung-Seop's Paintings of Children

이 미 화 · 이 미 량[†]

Lee, Mi-hwa · Lee, Mi-ryang[†]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 대학원,
안양과학대학 패션 · 뷰티디자인학부 부교수⁺

Dept. of Graduate Art · Design, Ewha Univ.

Dept. of Fashion & Beauty Design, Anyang Technical College⁺

Abstract

Fashion constantly exchanges influences with other art genres, attempting new design. Fashion does more than just covering the human body. It does meet the needs of modern people as an artistic work, which is much significant in itself. Clothes also use colors and forms to create visual images. Introducing paintings into fashion design as motives can reflect the artist's intentions hidden in the paintings and increase the value of the design. Thus this study after analyzing Lee's works and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his paintings of children, the composition features and line expressions observed in the paintings of children were used to create total eight design works. The theoretical study and design marking led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the fashion design works were original in material arrangements and alive in line images by applying the formative features of the lines and composition characteristics from Lee's paintings of children, the motives, to the process of material development and design. Second, the composition characteristics of the paintings of children were altered to fit the silhouettes of the clothes. Since the design was considered in the arrangements within the scope of not disturbing the major flows of the paintings, creative artistic clothes were created. Third, a range of background paper of nuno felting was used for the effective expressions of the motives, and changes were made to the thickness of felt to give the clothes a feel of texture. As a result, the clothes boasted beautiful silhouettes and natural feels with no needlework on the hems.

Key Words : Lee Jung-Seop's Paintings of Children, felt

I. 서 론

현대사회는 하루에도 수많은 의상들이 제작되고 있으며, 이러한 분위기 속에 현대인은 더욱 더 창의적인 디자인을 갈구하게 되었다. 이런 현대인의 욕구에 부합하기 위하여 의상 분야는 끊임없이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찾게 되었으며, 이에 회화장르와의 상호교류는 디자이너에게 창조적 영감을 제공해주는 중요한 조건이 되고 있다. 어떤 다른 예술 장르보다 의상디자인에서 회화장르의 응용 가능성이 다각도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상 모티브로 가치가 높은 회화에는 동·서양의 구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상디자인은 서양 작가의 작품을 주로 활용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현대사의 중심에 살면서 독창적인 조형언어로 순수한 예술적 감수성과 동양적 감수성을 자기함으로써 특징적 회화 세계를 창조한 우리나라 근대 회화작가 이중섭의 군동화 이미지를 의상디자인을 위한 조형적인 모티브로 재창조하려고 한다.

군동화는 발상의 전환, 표현기법의 자유분방함과 구성의 독창성, 소재의 다양성과 색채의 깊이를 갖추고 자유스럽고 유동성 있는 선과 다양한 구성과 구도로 표현한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군동화를 중심으로 한 이중섭회화의 작품세계와 조형적 특징을 구도, 선, 색채 측면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의상에 응용하여 총 8점의 작품을 제작하였다. 이때, 군동화에 나타난 조형요소를 극대화시켜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펠팅 기법을 혼용 사용하였으며 동시에 다른 소재와 펠트의 이상적인 조합을 시도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 작가의 회화를 응용한 복식디자인의 표현영역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II. 군동화의 정의

이중섭이 그린 작품 가운데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는 것은 아이를 모티브로 한 작품이다. 이중섭은 흔히 소의 화가로 알려져 있지만 어린아이의 화가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소보다 더 많은 어린아이를 그렸다. 처음에는 동자상이라고 불리던 것이 나중에는 아이 또는 어린이로 이름이 바뀌었다. 아이들을 모티브로 한 것은 가족이라는 작품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새나 동물들을 다룬 작품 속에도 등장한다. 특히 이중섭을 대표하는 은지화의 경우 거의 태반이 아이들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 이중섭의 아이그림을 군동화라 하는데, 여기서 군동화란 여기서 군동화란 무리 군(群), 아이 동(童), 그림 화(畫) 한자 뜻 그대로 ‘어린아이가 모여 있는 그림’을 의미한다. 군동화 작품은 민화적 경향의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는데, 민화란 생활조건을 같이하는 한 시대 민중에 의해 그들의 생활감정이 솔직하게 드러난 민족 회화로서 우리 전통 미술 가운데 통속성, 무개성, 등장인물과 동식물의 조화로운 어울림이 강조되는 전통미

술¹⁾)이다.

아이들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 집중적으로 그려지기 시작한 것은 피난 이후 제주 시대부터 라고 할 수 있는데, 이시기 그림들에서 아이들이 물고기, 게와 어울려 노는 장면이 빈번히 등장하고 있다. 모델로서의 아이들의 전형은 자신의 아이들로 추정되며 작품 속에 등장하는 많은 아이들은 작가의 두 아들의 변형이며 화면상 서로 얹혀 뒹굴고 있는 아이들은 작가의 두 아들이자 동시에 보편적인 아이들로서 자기 아이들을 통해 천진무구한 아이들 전체를 표현하고 있다.²⁾

1. 군동화의 조형적 특징

이중섭의 회화에서 그림속의 아이들은 특정한 대상과 어우러져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이들로만 구성된 경우는 그리 많지 않으며, 아이들은 거의가 복승이나 물고기나 게와 어울린다든지, 꽃과 새와 어우러져 표현되고 있다.

이중섭 군동화의 특징은, 첫째, 군동화 구성에서 소재들이 거의 예외 없이 움직이는 상태로 나타난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또 인물이나 동물을 둘러싸고 있는 배경은 하늘 혹은 빈 공간일 경우일 경우가 많다. 이중섭은 배경을 처리할 때 주제의 강조를 위해 색채나 질감 효과를 적절하게 이용하는 반면, 상황을 암시하는 표현이나 색채가 별도로 가해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단순히 비어있는 것도 아니어서 화면의 상단과 하단 혹은 전체에 긴 곡선 혹은 직선이 수평의 띠 형태로 가로지르면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³⁾

둘째, 밀도 높고 치밀한 선의 구성력을 들 수 있다. 거의 모든 작품들은 사물을 과감하게 평면화하여 구성하고 있다. 특히, 선만으로 모든 것을 구성하는 은지화의 경우는 더욱 평면적이다. 그러나 인물들 사이로 그의 작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3차원의 공간이 존재하며, 그것은 내면적 깊이를 암시하는 정신적이며 함축적인 공간으로써 그의 작품이 생명력을 가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셋째,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였다. 합판에 유채로 그렸으며 종이에 유채, 혹은 유채와 수채를 섞어 그렸고, 유화 제작의 고정관념을 깼다. 또한, 그는 한지에 먹을 듬뿍 묻힌 후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해 긁어내는 작업을 하기도 했다. 특히 담배속의 은지를 사용해서 독창적인 은지화를 만들었다. 재료나 매체의 영역을 확대했다는 것은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는 끌라쥬 작업이 현대적인 의미를 갖는 것처럼 상당히 현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1) 전인권(2000)『아름다운사람 이중섭』 문학과지성사 p.39.

2) 오광수(2000)『이중섭』 시공사 p.99.

3) 유정아(1999)『이중섭 회화에 나타난 조형적 특성연구』 조선대학교석사학위논문 p.23.

넷째, 사물과 사물이 얹혀 띠를 이루면서 이어지거나 화면 중앙 부분에 가로로 길게 강조된 물상처리, 배경에 삽입된 수평선이나 가로로 길게 굽이치는 구름 등으로 많은 작품에서 수평 구도와 상하배치구도를 취하고 있다. 대체로 수평구도 및 형태는 평화롭고 서정적인 분위기를 주도하게 된다.

이상의 군동화 특징 가운데 구도와 선, 그리고 색채에 대한 조형적 특징을 각각 <표 1>, <표 2>,

<표 1> 군동화의 구도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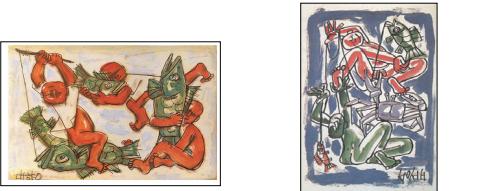
분류	특징	작품
원형 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와 동·식물 등 다양한 소재 등장 • 개체 단독 혹은 서로 얹힌 구조 • 신체 혹은 낚시줄, 끈, 해초, 스카프 같은 유연한 선에 의해 연결 결합 • 순환적 연결고리의 구도 • 변화의 굴곡의 요인적 구도 	
수평 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물과 사물이 얹혀 띠를 이루면서 이어짐 • 화면 중앙부위에 가로질러 길게 처리 • 굽이치는 긴 곡선과 수평띠 등장 • 평화롭고 서정적인 분위기 형성 	
상·하 배치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하 대치되는 기본구조에 수직을 나누어주는 줄이나 물체가 중심축을 삼아 나누어진 화면구도 • 접촉과 만남의 극대화 제공 • 화면전체의 역동적 분위기 	

<표 2> 군동화의 선 분석

분류	특징	작품
유화 표면위의 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덜 마른 유화물감을 나이프로 밀어내어 바탕색 표현 후 연필이나 골필로 선을 표현 주변을 긁거나 닦아 선의 이미지를 부각 바탕색의 미세한 변화 원근 무시 선이 겹치면서 생겨난 안료의 독특한 질감 선 주변 색조는 가능한 저채도로 표현 	
구름법적인 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윤곽을 선으로 둑어 그 안에 채색 개체의 태두리 라인과 개체구분 명확 선에 필치가 느껴짐 선의 긁기 유동적 	
상감기법을 응용한 온지화의 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리한 필촉으로 상감 한듯한 이미지의 선 선으로만 표현된 선이 더욱 강조됨 가늘고 미세한 라인 입체적 표면성과 깊이감 	

<표 3>에 제시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군동화는도록 중심으로 수집하였으며 이 가운데 아이가 등장한 군동화에 제한하였다. 조형적 특징분석은 수집된 그림의 사례별 특징 가운데 빈도가 높은 공통적 특징을 중심으로 본 연구자가 추출하였다.

<표 3> 군동화의 색채분석

분류	특징	작품
중첩을 통한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한된 안료의 중첩 단색조끼리의 중첩을 통한 중간색감 형성 술한 자국의 형성 색채의 겹침 효과로 깊이 있는 분위기 형성 터치감은 모티브의 생동감 부여 	
대비적인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색조의 바탕 색채와 대비되는 모티브의 색채 혼용 모티브의 주제의식 부각 생동감 있는 분위기 형성 	
온지화의 다갈색조의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노크롬 온지화에 표현됨 문질러져 표현된 세피아조의 색조 온지의 금속성의 색감 중화 → 따뜻한 분위기 형성 절제된 색채감각 	

III. 펠트의 특징과 종류

펠트는 그리스어로 ‘결합시키다’라는 뜻을 지닌 ‘풀젠’에서 유래한 말로서, 양모섬유를 재료로 하며 날실과 씨실을 교차하여 짜는 일반적인 직물의 제작방법과는 달리 실이 되기 이전의 섬유소를 압축해서 만드는 것을 뜻한다. 양모와 같은 모섬유의 표면에 있는 스케일(scale)이라는 성분은 습기, 열, 압축을 동시에 가하면 수축되면서 서로 엉키는 그림프(crimps)성질을 띠게 되어 펠트를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펠트는 모섬유만이 아닌 성질을 이용하여 방적되지 않

는 모섬유에 마찰을 가하거나 압력을 주어 결합시키는 기법이다.

펠트 원료로는 펠트화의 변형이 쉽게 일어나는 구조적 특징 때문에 모직물 중 양모섬유가 가장 선호되었는데 양모의 펠트화에 대한 과학적 입증은 20C에 양모구조를 밝힘으로서 규명되었다. 양모의 비늘구조는 따뜻하고 습기 있는 조건에서 팽윤하여 열리게 되며 여기에 마찰과 압력을 가하면 서로 상호 교차되면서 엉켜 수축, 고정된다. 여기에 알카리성 용액을 첨가하면 이 현상이 현저하게 강화되며 부드러운 상태의 모섬유는 단단히 연결되어 한 장의 천으로 형성된다. 이와 같은 공정을 축융(Felting)이라고 하며, 이 결과로 형성된 부직포(non woven fabric: 직조되지 않은 원단)를 펠트라고 부른다.⁴⁾

펠트는 의류용 천이나 실내 장식용으로 사용되었으며 또한 다른 천과 조합하여 많은 작품의 소재가 되어왔다. 펠트 가공기법에는 크게 펠트(Felt), 조각형태의 펠트(Sculpture of figure), 누노펠트(Nuno felt), 펠트와 합사(felt and willow braiding), 니들펀칭(Needle Punching Felting)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펠트가 예술을 위한 표현매체로 이용된 것은 현대의 일이다. 1970년대 이후 북미를 중심으로 한 예술가들의 활발한 연구에 의해 펠트는 새로운 조형언어로 이해되기 시작했다. 현대의 펠트는 자연스러운 조형성으로 회화적인 평면작품, 누노펠트, 혹은 3차원의 입체로까지 그 표현방식이 다양하고 독창적으로 발전하여 왔다.⁵⁾

IV. 제작의도 및 방법

본 연구는 군동화의 조형적 특징인 구도와 선, 색채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군동화의 이미지를 살린 총 8벌의 의상을 펠트기법을 사용하여 디자인, 제작하였다. 작품은 원피스 6점, 스커트 1점, 코트 1점, 자켓 2점, 베스트 2점의 아이템을 구성하였다.

앞서의 조형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중섭은 선의 효과적 표현을 위해 바탕색의 표현과 선의 느낌을 다양하게 표현하였는데, 이를 의상 작품으로 표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주 소재를 펠트로 하였고 누노펠트와 핸드니들펀칭 기법을 혼용하여 작품소재를 제작하였다.

작품의 주 소재가 되는 펠트의 제작과정은 우선, 군동화의 바탕색의 느낌이 갖는 유화적 질감의 변화를 위해 누노펠트 기법으로 바탕지를 제작하였고, 이때, 끝단의 자연스런 활용, 펠트의 축융을 고려해 펠트원단을 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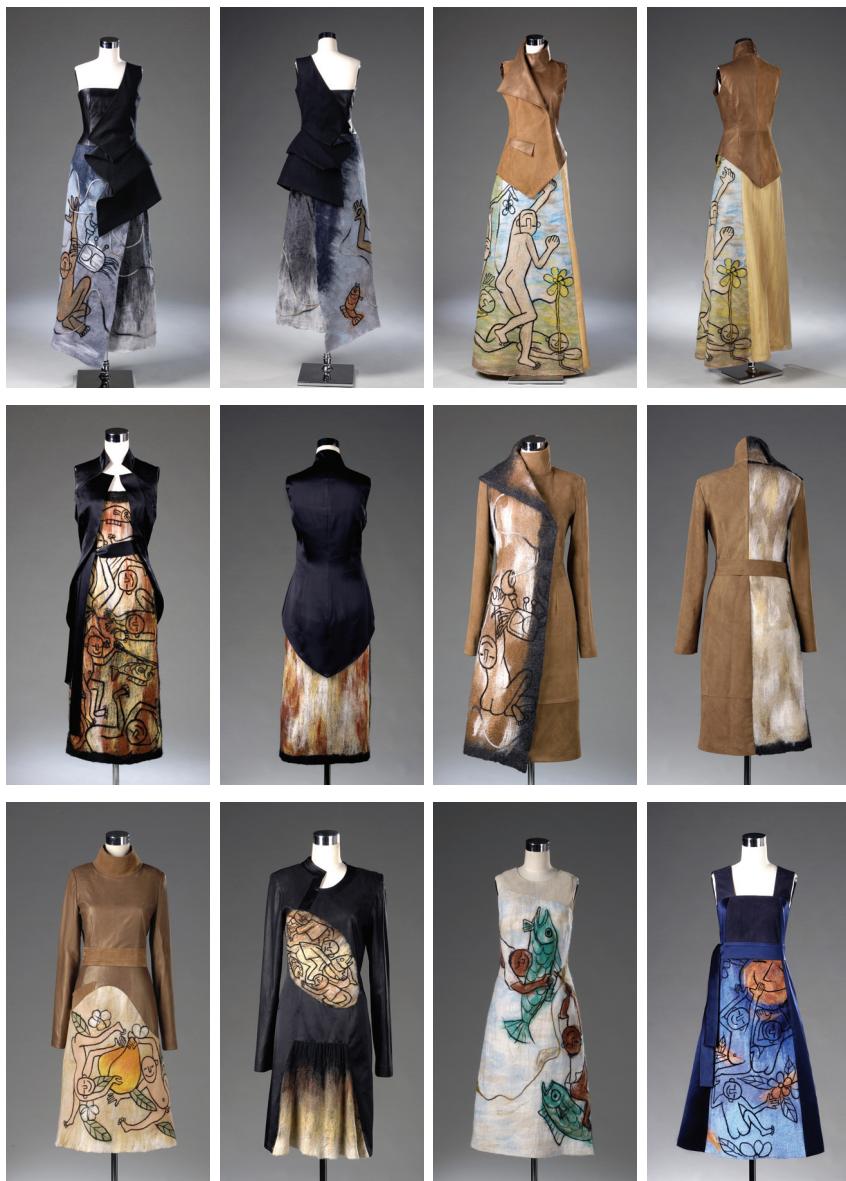
다음으로 핸드니들펠팅 기법으로 군동화의 모티브 개체들이 유기적으로 정교하게 얹혀있는 선의 특징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또한, 모티브 작품의 회화적 구도와 이미지의 연속성을 표현하기 위해 회화 이미지 부분에서는 솔기 및 봉제선을 배제하고 모티브 이미지가 의상 전

4) 김민자(2002)『감성지향의 Nunofelt 소재가공』 이화여자대학교학위논문 p.24

5) 임재경(2006)『조선시대 꽃창살의 조형미를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p.72-73

면에서 후면에서 율동감 있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또한 바탕원단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질감 차이로 두께나 비침의 정도의 미묘한 차이를 두었으며 모티브 속 선의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부각될 수 있도록 하였고 선의 두께와 터치감에 유의해 표현하였다. 이러한 펠트기법의 복합적 사용으로 군동화 회화가 가지는 특징적 아름다움을 극대화 시키고자 하였다.



<그림 1> 제작 작품

작품의 부 소재는 모티브 이미지의 효과적인 표현을 위해 가죽, 실크를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이질적 소재의 믹스매치를 적용하였다. 이때 펠트와 가죽의 질감차이는 색상의 통일로 이질적인 느낌을 최소화시켰으며, 부분적으로 은은한 광택감이 느껴지는 실크를 사용해 단조로움을 피했다.

의상의 실루엣은, 정형화되어있지 않지만 단순화된 형태와 역동적인 느낌의 군동화 이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비대칭적이고 아방가르드한 느낌을 살리며 부분적으로 벨트 포인트가 있는 절제된 스타일로 이루어졌다.

작품의 색상은 펠트부분에서는 모티브인 회화 이미지의 색감과 질감이 최대한 재현될 수 있게 하였다. 주제부분이 부각될 수 있도록 명도대비를 유도하는 블랙과 브라운 계열을 중심으로 사용하였으며 중채도의 그레이와 블루, 오렌지, 그린을 부가적으로 사용하여 이미지에 활력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V. 작품

이중섭의 군동화 이미지를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디자인, 제작한 8벌의 의상 작품은 <그림 1>과 같다.

VI. 결론

대중적이고 획일화된 의상들이 넘쳐나면서 좀 더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의상에 대한 요구는 내면적인 미의식의 발로이며 표현 방식만 다를 뿐 미적가치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다른 예술과 동일하다. 더 나아가서 의상은 다른 여러 예술 장르와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으며 새로운 디자인이 시도되고 있다. 특히, 예술영역 중 회화는 조형적 범주 안에서의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창조적 영감의 근원으로서 효과적이다. 하지만, 이런 회화의 예술적 모티브로서의 가치에도 불구하고 서양 회화가 주로 우리 의상디자인의 모티베이션이 되어왔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독창적인 조형 발상적 전환, 표현기법의 자유분방과 구성의 독창성, 소재의 다양성과 색채의 깊이감을 자유스럽고 유동성 있는 선과 다양한 구성과 구도로 표현한 이중섭의 군동화에 나타난 이미지에서 영감을 찾아 의상 디자인 연구를 시도하였다.

조형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의상의 모티브를 선정하고, 구도의 배치와 선을 표현하기 위한 효과적 배색, 패턴을 결정한 후 군동화에 나타난 선의 조형적 특징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펠트 기법을 적용시켰다.

펠트기법 중 누노펠팅과 핸드니들펀칭 기법의 혼용하였으며 모티브 이미지가 들어간 펠트 소재를 전반에 배치하기 위해 패턴에 유의해 펠트소재를 제작하였다. 부가적으로 펠트와 이 질적 소재인 가죽, 실크, 쉬폰등 다양한 소재를 부가적으로 활용함으로서 좀 더 창의적으로 예술적으로 표현하며 회화의 평면성에 맞는 재질적 효과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이론연구와 작품제작을 통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동화에 나타난 선, 색, 형의 조형성과 구도적 특징은 의상디자인을 위한 모티브로써 독창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기에 적합하였다.

둘째, 군동화의 선과 색의 조형성을 표현하기 위해 펠트기법을 선택하였고, 누노펠트와 니들펀칭 기법을 혼용하였으며, 이 결과, 회화의 색감변화와 질감 그리고 선의 율동성을 최대한 표현할 수 있었다.

셋째, 군동화의 구도적 특징을 옷의 실루엣에 맞도록 변형함으로써, 군동화의 이미지가 효과적으로 부각된 의상을 창조할 수 있었다.

넷째, 모티브의 효과적인 표현을 위해 누노펠트 제작시에 각 작품별로 다양한 바탕지를 사용하였고, 두께감에 변화를 줌으로써 다양한 재질감을 얻을 수 있었다.

다섯째, 펠트 제작시 스타일에 따른 패턴 제작 후 다크분량과 이음새를 제거한 펠트 제작으로 봉제를 최소화 하였으며, 이결과 온전한 군동화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었고, 자연스러움을 효과적으로 살릴 수 있었다. 또한, 펠트와 이질적 소재의 크로스오버적 소재매치로 기존 펠트 연구 작품과 다른 독특한 표면감을 강조할 수 있었다.

이상, 군동화에 나타난 이미지를 의상으로 제작함에 있어 군동화의 조형적 특징은 소재 구성과 배치, 디자인 계획에 깊은 영감을 주었다. 또한, 제작 기법에 있어 다양한 펠트 기법의 혼용으로 질감 표현과 선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응용할 수 있었다.

반면, 펠트소재를 응용한 의상이 예술로서의 가치 이상으로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향후 기술적 보완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본 연구를 통해 이중섭 회화를 비롯한 우리 회화가 의상디자인의 창조적 모티브로서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회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세계 시장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창조적 의상디자인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윤수 (1972). 『이중섭 연구』. 서울: 지문사
서성록 (1944). 『한국의 현대미술』. 서울: 문예출판사
윤범모 (1922). 『한국 근대미술의 한국성』. 서울: 가나아트

- 김원희 (1992). 『이중섭』. 서울: 동아일보사
- 임영방 (1990). 『한국근대회화선집』. 서울: 금성출판사
- 정병관 (1986). 『이중섭작품연구서설. 계관미술』. 서울: 중앙일보사
- 안구철 (1986) 『어디까지이중섭인가』. 서울: 중앙일보사
- 김종주 (1997). 『이중섭 신화』. 서울: 국민일보사
- 오광수 (2000). 『이중섭』. 서울: 시공사
- 박희정 (1994). 『이중섭 소고-이중섭 작품에 나타난 전통성을 중심으로』. 서울: 현대 미술관연구
- 전인권 (2000). 『아름다운사람 이중섭』. 서울: 문학과지성사
- 김영나 (1988). 『20C한국미술』. 서울: 예경.
- 현대화랑 (1972). 『이중섭작품집』
- 김영주 (1985). 『이중섭 미공개 작품전 카다로그: 이중섭을 회고 하면서』 서울: 동승미술관
- 김현숙 (1997). 『이중섭 예술의 양식고찰』. 서울: 한국근대미술사학회
- M.E Burkett (1979). The art of felt marker. Newyork: Titus wilson & son Ltd
- Vaclav (1990) Mastina
- Rachel B. (1980)
- 진행 (2000). 『이중섭 생애와 작품세계』. 석사학위논문, 공주대 교육대학원
- 범진우 (1987). 『박수근과 이중섭의 작품세계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미술대학원
- 유정아 (1999). 『이중섭 회화에 나타난 조형적 특성연구』.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대학원
- 김민자 (2002). 『감성지향의 Nunofelt 소재가공』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the athelier felt world

www.hobbyworld.com

www.felthouse.com

<http://www.firstviewkorea.com>